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신계숙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영하 15도에 눈까지 내려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달력을 보니 소한이 지났다. 이맘때면 어른들은 '대한이 소한 집에 가서 얼어 죽었다' '소한 추위는 꾸어다 해도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한데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짐작할 것 같다. 소한이 지나면 밀지 않은 곳에 불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일간지의 뉴스를 훑어보니 이번 주는 부동산에 관한 뉴스와 주식 뉴스가 크게 보인다. 작년 한 해 동안 아파트값이 20%나 올랐고 올해도 더 오른다고 한다. 주식은 코스피 3000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다 오르는 데 어찌해서 유독 내려가는 것이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 지지율이 36.6%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인가 보다. 대통령은 공공 임대주택을 방문해서 '2022년까지 총 650만 호를 공급하겠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신임 국토부 장관은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설날 이전에

국민의 마음 읽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국민은 또다시 스물다섯 번째 발표되는 '특단의 대책'에 관심을 가져 본다.

1970년대에 방주연이라는 가수는 '당신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모래밭에 사랑하는 사람의 눈·코·입 그리고 입가의 미소까지 모두 그렸지만 당신의 마음 한 가지는 몰라서 못 그렸다는 내용이다. 이제 마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요즘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 현 정부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는 것 같다. 무엇이든 단순함에 다 이루고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 국민의 마음 읽기를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힘들다. 첫째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기도 힘들다. 휴대전화에서 화면을 누르지 않아도 전화를 걸어 달라고 말하면 전화를 걸어 준다. 곧 자율주행차를 타게 된다고 한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했더니 이런 변화가 모두 4차 혁명시대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

둘째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상을 살아 내기가 힘들다. 젊은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집 한 채 살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빠져 있고,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칸 장만한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시름이 깊다.

셋째 정부와 소통이 안 돼서 힘들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려나 보다. 기자회견이라는 단어도 오랜만에 듣는다. 예전에 왕이 종과 북을 치고 피리를 불고 노래를 하자 백성들은 왕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곤궁하게

해 놓고 뭐가 좋다고 저렇게 시끄럽게 노래를 하느냐며 이마를 찌푸렸다. 왜냐하면 임금의 백성과 함께하지 않고 혼자서 즐겁게 놀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금이 종과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노래를 했더니 백성들이 우리 임금님께서 편찮으신 데는 없으신가, 음악 소리가 참으로 즐겁다고 했다. 이는 임금이 백성과 함께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맹자 '양혜왕하' 편에 있는 내용인데 '소통'과 '함께함'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구절이다.

중국 청대 문인이면서 관직에 종사했던 원매 선생은 그가 지은 조리서 '수원식단'에서 위정자가 할 일은 한 가지 정책을 더 만드는 것보다 국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폐단 한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본다면 스물다섯 번째 발표될 부동산 정책 특단의 조치는 새로운 묘수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이미 있는 정책 중 폐단으로 여겨지는 한 가지를 빼는 것이 정답일 수도 있겠다. 이것은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정부에 대고 수도 없이 외쳐 온 '규제 철폐'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나라이건 기관이건 리더가 몇 명의 참모만 데리고 좋은 나라 좋은 기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원래 자기가 살아 오던 방식대로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어 가는 데 무엇이 불편한지 파악해서 그 불편함을 제거해 주는 것이 정지일 것이다. 어디 그런 세련된 정치를 할 사람 없는가?

종교칼럼

소유(所有)와 공물(公物)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최근 부도덕하고 공정하지 못한 공직자들의 재산 축적이 쟁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전유죄' (無錢有罪)의 세상이 갑자기 '유전유죄' (有錢有罪)의 세상으로 바뀌는 듯한 분위기다. 이 같은 국민적 공분을 보면서 만약 각 종교 단체나 교직자(성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게 된다면 어찌될까 하는 상상을 해 본다. 그러다가 "너희가 나중에 부정한 공물로 사리사욕으로 생활을 한다면 나중에 생을 마감할 때는 위패에서 진땀이 흐르리라" 하겠다는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대종사(박종환 1891-1943)의 말씀이 떠올라 상상을 거두어 버리게 된다.

빛을 내서 주식을 하고 부동산 시장에 눈을 돌려 일단 사고 보자는 식의 투기성 경제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대화되면서, 그리고 1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실과 신용을 통한 이윤 추구나 근검저축에 기초한 경제 성장이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특별한 도덕 군자나 경제적 무능력자가 아니고서는 증권이나 부동

산에 관심이 가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도 생각해 본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릇은 깨칠지언정 그 그릇을 드러내지 말라" 하신 대종사님의 가르침이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문제의 공직자들을 변호하거나 관용을 베풀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다만 국민적 공분의 결과가 정치인이나 공직자 몇 사람을 단죄하는 것으로 수그러지는 일과성 한풀이나 통치 수단의 일환으로 이용되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함이다.

한편에선 부정부패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마저 "어찌 우리들뿐이며, 어제오늘의 일이나"고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걸렸으며 억울해 하기도 한다. 이는 염치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람들의 행태이지만, 그만큼 부패가 보편화된 관행이 뿌리가 깊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솔직히 종교 단체마저도 스스로의 결백을 주장할 수는 없으리라 짐작될 만큼 총체적으로 부조리가 만연된 상황에서 구조적 청산이 없는 몇 사람의 단죄가 일벌백계의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는 착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형편을 생각할 때 지금 일고 있는 개혁의 바람이 정치적 계산이나 지도자의 영단에서 행해지는 개혁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양심적이고 정당한 요구이며 또한 하늘이 시킨 임임을 깨달았으면 한다. 그리하여 거기에 성실히 응답하려는 자세로 온 나라가 합심하

여 건강한 사회를 기밀코 만들고자 하는 줄기찬 노력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국민의 정신적 지도를 자임하는 종교가 앞장서 바람직한 사회 윤리를 제시하고, 실천하며 그 본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도리어 걱정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건강한 종교인은 신앙을 가진 정치·기업인·지도자들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법신불께 보은을 하는 신앙 운동의 일환으로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할 때라 생각한다. 대종사님이 제자들과 저축조합을 형성하고 간척 공사를 하고 중앙 총부를 만들면서서 일관되게 보여줬던 것이 영육쌍전(靈肉雙全)의 이념과 근검저축의 생활 정신, 이소성대(以少成大)와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정신 등은 원불교의 생활 정신이고 이는 어느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바람직한 경제 윤리라 할 수 있다.

소유 자체는 죄악일 수 없다. 소유를 위한 활동 자체는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그 과정이 근검과 저축의 정신 속에 자리아타로써 이루어져야 하며 이렇게 성취한 부라 하더라도 사은(匹贖)의 공물(公物)임을 알아 공익의 보람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국민적 공분이 부패 관행을 씻어내는 정의의 강물이 되고 건강 사회를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올해는 종교인들이 먼저 솔선수범과 올바른 실천에 나서길 희망해 본다.

기고

군공항 이전, 정치권은 군민의 알권리 존중해야



임창진
전 무안군체육회 사무국장

10여 년 이상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제가 예비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이전 후보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무안 지역으로 결정난 것처럼 읍·면이 릴레이 하듯이 사회단체들의 이전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정도 차이가 있고, 찬성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마치 무안에는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나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지역 발전을 고민하고 찬성하는 주민의 의사는 무시한 채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세력 강화를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주민들도 상당수다. 이는 지역에서 말 한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군 공항 이전이 마치 지자체들끼리 하는 사업인양 잘

못된 정보를 흘리면서 보상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액션이다 하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무로 국가가 관장하는 사무이다.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서 추진된다. 그러나 국가 사업에 협조해야 할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정치인들이 주민들을 선동하는 발언을 해서도 안되며,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뜻을 물어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특히 단체장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직접 표현해서 자신의 정치 세력화에 이용한다는 오해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을 공문화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장단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여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찬반 의견을 갖고 있는 군민 모두의 단체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국방과 관련된 중차대한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이다.

특히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세밀한 장·단점 자료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최소한 군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어떤

해로운 점이 있고,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지역 발전에 어떠한 저해 요소가 있고,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가? 주민에게 소상히 알려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행할 자제인 것이다.

그런데 아직 이전 후보지가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는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그저 소음 등 피해 자료만 제공 하고 반대를 선동하고 있다. 군 공항이 이전되면 이전 지역의 인구 증가와 지역과 주민에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역 주민들에게 군 공항 이전 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국방부의 주민 설명회조차 거부하고, 이전 설명 자료는 개봉도 하지 않은 채 반려해 놓고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떠들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 공항 이전되면 마치 지역 주민들이 모두 살기 어려울 것처럼 확대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장단점을 공개하고 설명하여 주민의 뜻을 묻는 것이 지역 지도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야 민간 공항 이전과 공항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의 기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군 공항 이전이라는 국가 사업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문제 해결과 광주·전남 상생 발전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社說

외국인 노동자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

"화상을 입고 며칠이 지나서야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화장실에도 못 갈 정도로 쉬는 시간도 없다." "3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했다." "기숙사에 바퀴벌레가 득시글거린다."

이는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최근 발간한 '광주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삶'이라는 책자에 담겨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하소연이다. 광주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 내팔·몽골·방글라데시·필리핀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우리가 기피하는 이른바 '3D'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분야)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사실상 광주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 지역 농업·어업·제조업 등도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버티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의료 혜택도 제공받지 못

하고 있다. 회사 측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는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곳이 많다고 한다. 몽골에서 온 노로브준 텐 씨는 "2년 넘게 박스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휴가·조퇴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알투미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내팔 출신 기리데비렘 씨는 8개월째 식도염을 앓고 있지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7312명이다. 심각한 고령화와 젊은 층의 수도권 출립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광주·전남 산업 현장에서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제는 이주노동자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의식을 가질 때다. 이제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생활·근로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게임들이 끌고 가는 주식시장 과열 경계를

코스피지수가 어제 증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다. 전날 장중 3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3031로 장을 마감, 역사적인 '코스피3000 시대'를 연 것이다.

코스피지수가 2000에서 3000에 도달하기까지는 13년이 걸렸다. 코스피3000 시대 개막은 시중에 넘쳐나는 유통성에 더해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게임들이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3월 코스피지수가 1400대 초반까지 떨어지자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해 코스피 3000 시대를 이끈 주인공이 됐다.

이들은 지난해에만 국내 주식 시장에서 63조 원의 주식을 사들였다. 코스피2000 시대의 주력이 외국인과 기관이었다면, 코스피3000 시대는 오롯이 개인이 이끌었다고 할 만하다.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규제까지 더해지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식 시장에서 무조건 사들이고 보는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게임들의 주식 투자 열풍은 광주·전남 지역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지난 한 달 동안 지역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대금은 20조 원에 육박해 1년 전에 비해 아홉 배나 급증했다. 흔히 주가가 상승하는 강세장을 불(bull·황소) 마켓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게임들이 황소를 끌고 가는 형국이다. 시중에는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70조 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빛을 내 투자하는 신용 융자 잔액이 20조 원에 육박하는 등 과열 조짐도 보인다. 광주·전남은 특히 가계대출 증가율이 전국 2,3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빛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는 이제 경계할 때가 됐다.

주식은 기업의 실적에 기반하는 만큼 기업 실적과 주가의 괴리가 커진다면 언젠가는 조정 국에 육박하는 등 과열이 예상된다. 한국은행 등 정책 당국도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식 투자가 대세가 됐지만 위험 요인을 늘 체크하는 투자 자세가 필요한 때다. 마냥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다.

無等鼓

잇을 만하면 아동 학대나 아동 살해 뉴스가 보도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양부모나 계부모의 악행은 물론 친부모의 방조나 묵인도 많아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절대악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등의 범죄는 시가나 장소에 상관없이 자행되고 있다. '신데렐라'나 '정화홍련전' 등 계모의 학대를 주제로 했는데 이처럼 아동 학대를 주제로 한 영화나 소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지만 이중 최고의 악녀는 그

순은 드디어 황금 양털을 손에 넣는다. 이아손 일행이 아르고호를 타고 콜키스를 빠져나갈 때 콜키스 왕 아이에테스가 추격했다. 그러자 메데이아는 자신의 동생을 죽여 그 사지를 바다에 던진다. 아이에테스 왕은 바다에 던져진 어린 아들의 사지를 건져내느라 추적을 할 수 없었다.

이아손은 귀국 후 테살리아의 왕이 되고, 메데이아와의 사이에 두 아이를 낳는다. 권태기가 올 즈음 이아손은 이웃 나라 공주와 결혼을 한다. 이에 분노한 메데이

아, 정인이!

인물로, 수많은 작품의 모티브가 됐다.

메데이아는 그리스 영웅의 한 사람인 '이아손'의 부인이 된 여인이다. 이아손은 아르고호 원정대를 이끌고 왕위에 필요한 '황금 양털'을 구하기 위해 모험 끝에 콜키스 왕국에 도착한다. 이아손에게 젓는에 반한 콜키스의 공주 메데이아는 황금 양털을 얻도록 도와주는 대신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제안했고, 이아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메데이아의 마법과 지혜로 해결함으로써 이아

아는 이아손과 사이에 낳은 두 아이들을 죽이

고 궁전에 불을 지른 뒤 아테네로 도망친다.

최근 16개월 임야가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해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다. 빈소에는 연예인과 정치인의 추모 행렬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검찰에서 입양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으나 수십만 명의 시민들은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며 국민청원을 제출한 상태다. 아동 학대는 가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다. 제2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채희송 사회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2-0649	222-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2-0632	222-0692	기획관리국	227-9600
222-0663	222-0694	(FAX 222-0195)	(FAX 222-0195)
222-0652	222-0621	디자인실	220-0536
222-0642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